

복지국가소사이터의 출범에 부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대단히 무거운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닥쳐온 불행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쌓아 온 역정으로 인해 빚어진 필연적 결과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를 들어 생각해 보아도 이는 충분히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고가 가정 안과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분업관계를 대단히 불평등하게 고정시켜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여성이 행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여 아동의 양육과 노인·장애인 등의 부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거의 만들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또한 능력을 발휘하여 노동시장에 나가는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정상적인 기회나 역할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단순정력직으로 밀려나거나 출산과 육아의 부담 속에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몰려 '여성의 빈곤화'를 가져오는 이것이 오늘날 양극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집중되는 가정사의 부담이 여성에게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한다해도 출산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른바 '출산파업'이라 불리는 행동양식을 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며, 상대적으로 고령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요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목표로 삼아 달려오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또한 사회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희생되어온 소중한 분야들을 회생시키는 위대한 작업이 우리 사회에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위대한 작업의 작은 발걸음이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매우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정치적 목적

과 스스로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 명멸해왔지만 이 모임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사회에 복원시키려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소개하여 우리사회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다한다는 점에서 분명 이제까지의 모임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앞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향하는 바를 소중히 지켜 나가 우리 사회의 밝은 빛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기원합니다.